

# 세계문화장관회의(MONDIACULT) 2022,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문화정책 가치 재고

**정 보 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본 브리핑은 문화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장관회의(MONDIACULT; 세계문화정책회의)를 소개하고, 1982년 최초의 세계문화장관회의(MONDIACULT) 이후 40년이 지난 2022년 10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장관회의(MONDIACULT)가 문화정책에 합의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 ■ 유네스코, 글로벌 문화정책 미래 모색

유네스코는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장관회의(MONDIACULT), 1998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문화와 발전에 관한 정부 간 회의 등을 통해 문화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1982년 최초의 세계문화장관회의에서는 문화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사회나 사회 집단을 특징짓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의 집합”으로 확장했다(멕시코 선언). 이는 문화의 개념을 예술과 언어 외에도 삶의 방식, 기본적 인권,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까지 포함한 사회 및 인류학적 의미로 확장한 것이다. 1982년 세계문화장관회의의 멕시코 선언은 글로벌 문화정책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유네스코는 글로벌 문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왔다.

그리고 유네스코 회원국 문화부 장관이 참석한 1982년 세계문화장관회의 이후 40년, 1998년 스톡홀름 회의 이후 24년이 지난 2022년 10월,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한 국

제사회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세계문화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1. 유네스코, 세계 문화정책 회의

년도	내용	
1982	MONDIACULT : 문화정의의 확장	- 제1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MONDIACULT)는 문화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사회나 사회 집단을 특징짓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의 집합”으로 확장
1995	정책결정 중심에 문화를 포함 (스톡홀름)	- 문화와 개발에 관한 문화정책의 새로운 글로벌 의제를 정의하기 위해 스톡홀름에 회의를 소집 - 이해 관계자 파트너십을 통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노력
2022	MONDIACULT 2022 문화정책의 재개	- 유네스코 세계문화정책 및 지속가능개발 회의 - 지속가능개발 전망 전반에 걸쳐 문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문화 부문을 형성하기 위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우선순위를 선언함

(출처 : 저자 작성)

## ■ 2022년 세계문화장관회의, 문화를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

2022년 10월 열린 세계문화장관회의는 멕시코시티에서 150개국 약 2,600명(135개국 문화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3일간(2022.9. 28~30)의 회의 끝에 문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화부 장관들은 지속 가능개발을 이행 및 추진하기 위해 문화를 “글로벌 공공재”로서 인식하는 강화된 다자주의를 서약했다.

선언문은 회복력, 사회적 포용과 결속,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문화의 새로운 역할을 촉진하고 있다(선언문 3조). 선언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문화생태계의 혼란과 사회적 격차 및 불평등에 대한 우려

구체적으로 지구적 환경과 관련된 도전과제와 영향,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위기(특히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무력 분쟁, 자연 재해, 전염병, 통제되지 않은 도시화 및 지속 불가능한 개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빈곤증가, 기본권 침해, 이주 및 이민 가속화, 정보격차를 포함한 불평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COVID-19 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문화생태계 전체의 혼란과 사회적 격차, 성별격차 및 불평등한 접근 등 문화 가치사슬의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기본적 자유, 예술적 자유, 예술가, 문화 전문가, 실무자 및 커뮤니티의 지위와 생계에 대한 제한적인 현실도 지적하고 있다(선언문 4조).

나아가 문화유산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력충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

였다. 문화재 불법 거래의 방지, 인권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 해소, 문화 생산자 및 기관 등 시장의 취약성 등이 문화다양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선언문 5조).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정부 간 기구(IGO), 민간 부문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문화정책으로의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 어린이, 토착민, 장애인 및 취약 집단 등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언문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더 넓은 틀에서 문화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선언문 7조).

### ■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불균형 지적,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 재확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 흐름의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의 위협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 실무자에 대한 불공정한 보수에 대한 불평등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불평등한 집중으로 인한 글로벌 문화상품 및 서비스 교환의 불평등 심화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선언문 8조).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든 유네스코 협약, 권고 및 선언의 기본 원칙이자 민족 정체성의 기초인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미래 세대를 위해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언어, 지식, 관행 등 포함)을 포함한 전체 문화 부문의 보존, 보호 및 증진을 의무로 보장하는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선언문 9조).

이를 위해 모든 문화 영역에서 인권, 특히 문화적 권리(개인 및 집단)를 존중하고 권리를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

지털 환경, 특히 문화에 대한 접근과 문화생활 및 혜택에 대한 참여 보장, 지적 재산권 강화를 포함하여 예술가·문화 전문가·실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강화 및 이동성 촉진과 지위보장, 예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호·증진, 언어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콘텐츠의 다양성 보호 및 육성, 지역민 문화의 표현을 포함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적 및 공공 정책 프레임워크의 실행, 문화재의 보호 및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선언문 10조).

## ■ 문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영향 축척 필요

유네스코 데이터에 따르면 문화 및 창조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발전 동력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4,8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고용의 6.2%, 전 세계 GDP의 3.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UNESCO, 2022).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생태계는 사회적 격차 및 불평등,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불균형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기침체, 기후변화, 사회 전반의 갈등 고조 상황은 문화정책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문화정책 가치는 문화권에 대해 더욱 확장된 관점이다. 이러한 정책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미적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영향을 축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UNESCO 웹사이트, 'MONDIACULT 2022'.

(<https://www.unesco.org/en/mondiaicult2022>)

UNESCO(2022).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 Addressing 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 - Executive Summary.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람(2022). "세계문화장관회의(MONDIACULT) 2022,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문화정책 가치 재고".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297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람 brj@kcti.re.kr  
ACKIS브리핑 발행일 2022.11.09.

#UNESCO #MONDIACULT #세계문화장관회의  
#글로벌공공재로서의문화